



2021 - 2026

Incheon Dong-gu
Cultural & Sports Center
5th Anniversary

2026 상반기 공연/전시 프로그램북

2026

SEASON

PROGRAM

BOOK

클래식시리즈, 산책

2025

SEASON
PROGRAM BOOK

2026년 산책시리즈는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무대의 중심에서는 다소 멀게 느껴졌던 악기들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연스럽게 전하며, 새로운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호른의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음색, 클래식 기타의 섬세하고 친밀한 선율, 하프의 투명하고 우아한 울림, 그리고 플룻의 맑고 자유로운 호흡은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편안한 입문이 되고, 이미 클래식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또 하나의 발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의 토요일 오후 5시,
탁 트인 오후의 여유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전하는
고요한 아름다움과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규희&양방언 3.28.(토) 17:00

김홍박&아레테 콰르텟 6.27.(토) 17:00

이수빈&박예람 8.29.(토) 17:00

클래식시리즈, 산책

세대와 장르, 국경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열정적인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 대형 아티스트의 만남

박규희&양방언 듀오 콘서트 두 개의 빛



일시
3월 28일(토)
오후 5시

출연진
피아노 | 양방언
기타 | 박규희

러닝타임
9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30년간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의사 출신 재일교포 2세 음악가 양방언과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확장해 가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흥미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2023년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처음 선보인 본 프로젝트는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오직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교감하는 두 아티스트의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관객분들께 색다른 영감을 전했습니다.

양방언의 독창적이고 서사적인 음악 세계는 박규희의 내밀하고 깊이 있는 기타 사운드와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적 감동의 순간으로 이끌 것입니다.

클래식시리즈, 산책II

호른리스트 '김홍박'과 현악4중주단 '아레테 콰르텟'의 만남!
따뜻한 메탈, 황금빛 호른과 현이 만나는 순간

김홍박&아레테 콰르텟 GOLDEN



©Shin-joong Kim



©Shin-joong Kim

일시
6월 27일(토)
오후 5시

출연진
호른 | 김홍박
연주 | 아레테 콰르텟

러닝타임
85분(인터미션 15분 포함)

프로그램
W. A. Mozart : Horn Quintet
in E-flat major, K.407 외

복유럽의 명문 오슬로 필하모닉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관악계의 독보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한 호른리스트 김홍박이 2025년 밴프 국제 현악사중주콩쿠르 한국인 최초 준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쓰며 세계 음악계의 중심에 선 아레테 콰르텟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독특한 음색과 폭넓은 표현력을 지닌 호른은 이번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일원을 넘어 독보적인 솔로 악기이자 실내악의 구심점으로서 화려한 테크닉과 온기 어린 낭만성을 가감 없이 드러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음악의 본질(Arete)'을 향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는 아레테 콰르텟의 정교한 앙상블이 더해져, 신선하고도 깊이 있는 찬란하고 황금빛 가득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클래식시리즈, 산책III

손 끝에서 펼쳐지는 천상의 소리, 젊은 리더를 조명하다.
하프의 빛, 플루트의 바람으로 완성되는 무대

이수빈&박예람

Dance & Fantasy



©Shin-joong Kim



일시
8월 29일(토)
오후 5시

섬세한 예술성으로 주목받는 하피스트 이수빈과 맑은 음색의 플루티스트 박예람이 만나, 빛과 바람이 어우러지는 듯한 고요하고 깊이 있는 실내악 무대를 선보입니다.

출연진
하 프 | 이수빈
플루트 | 박예람

하프 특유의 빛처럼 번지는 울림과 플루트의 바람처럼 흐르는 선율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공간 속에 섬세한 호흡과 균형을 채워나갑니다. 화려함보다는 여백의 미를, 강한 자극보다는 잔잔하게 스며드는 감동을 지향하며 실내악만이 가진 친밀하고도 밀도 높은 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낼 예정입니다.

러닝타임
70분(인터미션 없음)

프로그램
G. Fauré : Sicilienne
A. Piazzolla : Histoire du Tango 외

포레의 서정적인 <시살리안느>부터 피아졸라의 정열적인 <탱고의 역사>, 그리고 하프와 플루트의 환상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생상스의 <판타지>까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두 악기가 빛어내는 투명한 울림 속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퇴근후N 시리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잔잔한 음악 한 곡이 위로가 되던 저녁.

하루를 버티느라 무거워진 어깨는 조금 가볍게,
복잡했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잠시 공연장에 들러 음악과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버티기만 했던 하루가,
뜻밖에 오래 남을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홍대광 4.21.(화) 19:30

윤일상 5.19.(화) 19:30

2026

SEASON
PROGRAM BOOK

퇴근후N시리즈

담담하지만 따스한 목소리로 전하는 가장 솔직한 위로
홍대광의 노래가 머무는 순간, 오늘을 '좋은 날'로 바꾸는 시간

홍대광 좋은 날



일시
4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출연진
보컬 | 홍대광
피아노 | 김우상
기타 | 조성환
드럼 | 장세환
베이스 | 이종범

러닝타임
70분

프로그램
좋은 날이 오려나봐요
잘됐으면 좋겠다 외

자신만의 독창적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싱어송라이터 홍대광은 담담한 목소리와 진솔한 가사를 통해 수많은 관객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왔습니다. 독보적인 미성과 다정한 감성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의 목소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며 일상의 서정성을 노래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에 가까운 창법으로, 말하듯 노래하는 홍대광 특유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용히 감정을 쌓아 올리는 그의 노래는 관객 각자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맞닿으며, 음악이 지닌 본연의 치유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홍대광의 음악 세계를 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만드는 투명한 감동의 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근후N시리즈II

어느 날의 일상, 음악이 되다.
윤일상의 감성으로 그려낸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

윤일상 어느일상



일시

5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출연진

피 아 노 | 윤일상
생 향 | 김소엽
바이올린 | 정다은
첼 로 | 김수현
보 컬 | 김그레

러닝타임

70분

프로그램

애인 있어요(원곡 이은미)
보고싶다(원곡 김범수) 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윤일상이 결성한 뉴에이지 팝(New Age Pop) 밴드 '어느일상'은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특별한 순간들을 음악으로 그려냅니다.

익숙한 서양 악기와 전통악기 생황의 만남을 통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멜로디로 관객의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집니다.

멜로디 사이에 머무는 침묵과 절제된 사운드는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자유롭게 떠올리게 하며, 음악을 듣는 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완성하게 합니다. 화려한 사운드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잠시 속도를 늦추고 여유와 위로를 전하며, 비어있는 듯하지만 깊이 있는 '여백의 사운드'로 삶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 진정한 감성 음악의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획 공연

리틀 뮤지션 스페셜

5.2.(토)

AM 11시, PM 2시 30분

운빨로맨스

6.12.(금)

미정

6.13.(토)

PM 5시

2026

SEASON
PROGRAM BOOK

기획공연

풍성하고 다양한 라이브 악기 소리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족음악극
'뽀도독 뽀도독! 끼익! 뽀이~옹' 일상을 환상적으로 꾸며줄 모험 속으로!

환상가족음악극 리틀 뮤지션 스페셜



일시

5월 2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출연진

모비치 | 김하얀

모 모 | 김민형

비 비 | 서혜주

티 티 | 조수아

루 야 | 남유하

마 세 | 박소희

러닝타임

60분

얼어붙은 세상을 구하고자 태양을 찾아 떠나는 어린 악사의 모험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성한 소리와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를
통해 관객들을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하며, 독창적인 시도로 국내외
평단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 대신 일상의 사물들이 악기로 변신하고, 눈앞
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기발한 효과음들은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이 환상적인 여정을 통해, 온기 어린 위로와
감동의 순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시리즈,
산책

기획공연
기획전시

퇴근후N
시리즈

2025
SEASON
PROGRAM
BOOK



기획공연

설렘 폭발, 여기가 로코맛집! 90분 간 펼쳐지는 특별한 로맨틱 코미디
운명을 믿지 않았던 두 사람, 사랑만큼은 운빨이었다?

연극 운빨로맨스



일시
6월 12일(금) 미정
6월 13일(토) 오후 5시

러닝타임
90분

운명과 사랑을 전혀 믿지 않는 남자와 하루의 선택을 운세에 맡기는 여자가 만나 벌어지는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가볍게 웃으며 시작된 이야기는 일상의 깊은 공감과 설렘으로 이어집니다. 사랑 앞에서 누구나 흔들리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현실적인 대사와 빠른 전개로 몰입감을 더합니다.

연애와 운명, 그리고 선택에 대한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낸 이번 작품은 마음껏 웃고 즐기며 따뜻한 온기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연극이 끝난 뒤, 오늘의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슴 속에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 전시

시그널 시리즈

4. 28.(화) ~ 6. 27.(토)

월~금 AM 9시 ~ PM 6시

토 AM 9시 ~ PM 4시

2026

SEASON
PROGRAM BOOK

기획전시

보고 느끼는 그대로, 동글동글한 동물들이 전하는 현대 사회의 신호
누구나 편하게 만나는 조형미술의 새로운 시선!

도근기 작가 초대전 시그널 시리즈



일시
4월 28일(화) ~
6월 27일(토)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오전 9시 ~ 오후 4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작가
도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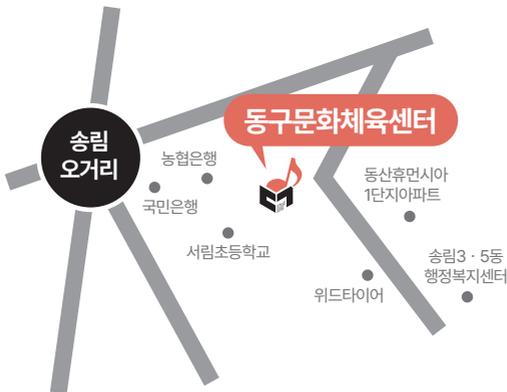
도근기 작가의 <시그널 시리즈>는 동글동글하고 친근한 동물 형상의 조형미술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메시지를 풀어냅니다. 익숙한 동물의 모습을 빌려 표현된 작품들은 처음 마주하는 순간 편안한 인상을 전하며,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으로 이끕니다.

작품 속에는 관계, 소통, 일상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지만, 반드시 의미를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엽고 친근한 형상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110번길 5-8 동구문화체육센터
 전철 1호선 도원역 3번 출구 도보 15분(1km)
 버스 12, 13, 24, 72, 306, 306A, 800, 800A번 현대시장 정류장 하차

- 예 매 **NOL ticket** (1544-1555), **엔티켓** (1588-2341)
- 예매시간 24시간(티켓오픈일로부터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 예매 가능)
- 예매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연선택 ▶매수선택 ▶할인선택 ▶결제선택 ▶예매완료
-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 단체예매 30인 이상 예매 시 별도문의(동구문화체육센터 032-760-3604)



동구문화체육센터와 SNS친구가 되어주세요!
 센터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즐거움과 설렘을 더해보세요!